

본격적 개발은 이제 시작...

- 세계의 공장, 중국 '위협론' 확산 -

지난달 말 텐산(天山)산맥 최대의 도시 우루무치에서 이색 TV 판매전이 열렸다. 우루무치는 베이징에서 기차로 50여 시간 걸리는 중국 서부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의 성도(省都)이다. 중국 굴지의 가전 업체인 캉자(康佳)가 텐산백화대루(大樓), 우호상장(友好商場), 후이자스다이(匯嘉時代) 등 현지 유명 백화점에서 TV를 저율로 달아 무게로 판다는 판촉전을 시작했다.

"TV 1kg에 37元"

캉자의 예상은 적중했다. 이날 캉자 TV는 불과 몇 시간 만에 100여대가 팔리는 등 행사 기간 이들 동안에 평소의 3배 물량을 팔았다. 중국 언론들은 "이제 TV는 배추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 소비자의 말을 곁들여 이 사건을 보도했다. 중국에서 신품 TV를 저율에 달아 판 것은 우루무치가 처음이 아니다. 불과 며칠 전 중국 중부 후베이(湖北)성 성도인 우한(武漢)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우한의 주요 백화점들이 중국 유명 브랜드의 TV들을 쌓아놓고 무게로 달아 팔기 시작하자 중국 관영 인민일보에 이 사건을 크게 소개하면서 "더위는 식어가는 데 TV 시장의 판매전 열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다"고 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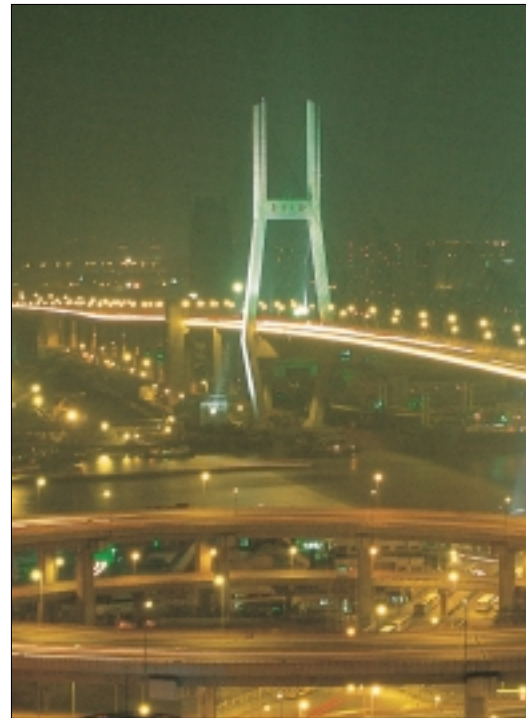
중국 가전 업계가 치열한 판매 전쟁에 휩싸인 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이다. 1996년 중국 최고의 TV 제조업체인 쓰촨(四川)성 소재 창홍(長虹)전자집단이 21

인치 TV를 대상으로 불을 붙인 가격 전쟁은 지난 5년 사이 중국 업체간에 10차례에 걸친 'TV 가격 인하 대전(大戰)'을 촉발시켰다. 그 결과 현재 25인치 컬러TV는 불과 500위안(8만원 상당)대로 떨어졌고, 29인치 TV도 지난해와 올해 업체들간의 치열한 가격 전쟁 결과 1,000위안(16만원)대로 가격이 폭락했다. 창홍과 캉자는 8월 하순 쓰촨성 청두에서 29인치 TV를 999위안에 내놓았고, 이 바람은 서쪽인 베이징 선양(沈陽)으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가격 전쟁 열풍은 TV뿐만 아니라 에어컨, 전자레인지, 세탁 등 백색 가전은 물론 VCD, DVD 등 첨단 제품에 이르기까지 전자 업계 전역으로 몰아닥쳤다. 벽걸이형 에어컨은 올 초 이미 30만원(원화 기준)대로 떨어졌고, DVD도 9월 들어 998위안의 가격표가 내걸렸다. 이들 업체들의 가격 전쟁은 중국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포의 대상 ... '메이드 인 차이나'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 총서는 올 상반기 중국의 대외 수출이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특히 기계 전자 제품의 수출이 16.7% 신장해 부문별로 최고 증가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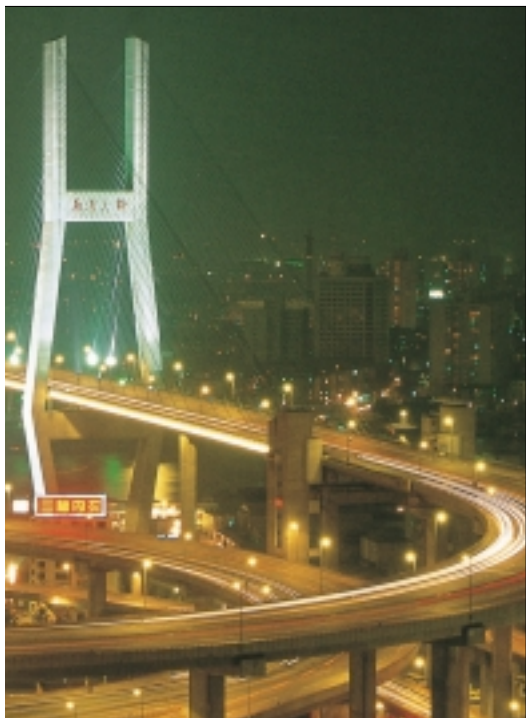
'메이드 인 차이나'가 봉제 인형이나 신발 등 경공업 제품에서 뿐 아니라 TV, 에어컨 등 가전 분야에서도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중국을 바라보



는 세계의 눈도 바뀌기 시작했다.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중국의 눈부신 성장이 이웃 나라들에게 '공포와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부상 은 동아시아 전통적인 경제 개발 모델을 끝장낼 것으로 우려되며 이 우려가 맞는다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적응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이 주간지는 밝혔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개발 모델은 흔히 '나는 기러기 패턴'으로 비유되어 왔다. 일본이 가장 앞서서 날아갔고 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뒤를 따랐다. 신발이나 축구공 같은 단순한 상품을 수출하는 데서 시작해 이윤을 재투자, 반도체 및 노트북 컴퓨터와 같이 더욱 정밀한 제품을 수출하면서 임금과 생활 수준이 선진국을 향해 올라갔다.

그러나, 불행히도 중국은 기러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생리대부터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제품과 정밀한 제품을 동시에 만들고 있는 중국이 이 기러기 패턴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용틀임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진의 난푸대교는 중국이 자체 기술로 설계하고 시공한 현수교이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위협'

중국은 국제 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대규모 모든 가격대의 물건을 만들고 있다. 동아시아의 걱정은 중국이 이처럼 '세계의 공장'으로 맹부상하는 가운데 이웃 나라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ASEAN(동남아국가연합)이 뭉쳐야 살아남는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로돌프 세베리노 ASEAN 사무총장은 8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경제 관련 회의에서 "중국의 고도 성장과 투자 유치 확대가 ASEAN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아세안 회원국들간의 경제 통합을 서둘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경쟁을 포기하고 차라리 틈새 시장을 찾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최근 한 동창회 모임에서 "13억 중국인들은 매우 근면하며 기술이 있을 뿐 아니라 생활비가 저렴해 낮은 임금도 기꺼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경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대신 그는 "틈새 시장을 찾아야 한다"며 "말레이시아가 중국에 대해 약간이나마 우세를 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멀티미디어 슈퍼 허랑(콜라뽀푸르 남부 첨단 기술 공업 지대)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 위협론은 대만, 일본, 한국으로도 번지고 있다. 일본의 유명 경제 평론가 오마에 겐이치는 중국의 부상이 지난 1997-98년의 경제 위기보다 훨씬 더 가혹한 '제2의 아시아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일본은 지난 10년간 제로 성장을 거듭해온 끝에 국민들은 과거의 영화에 집착하고 정치는 우익화의 길을 걸으며 주변국으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대만은 상반기 수출 부진과 경기 침체 등으로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2.5% 성장으로 재조정했다. 한국은 상반기 2.7%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6-7월 이래 주력 수출 시장인 대중국 시장 수출 부진으로 성장 전망이 급격히 불투명해졌다. 반면, 중국은 이 시기 7.9%의 성장을 시현, 한국 등 주변국들과 대조를 이뤘다. 주변 나라들은 경기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데 중국은 아랑곳없이 고도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본격 개발은 지금부터 시작...

그런 가운데 지난 7월 중국에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경사가 찾아들었다. 올해 말의 WTO 가입과 2008년 하계 올림픽의 베이징 개최를 성사시킨 것이다.

중국은 7월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중국 작업반 회의에서 오는 11월 WTO에 정식 가입하기로 확정했다. WTO에 가입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의 위력은 더욱 맹위를 떨칠 수밖에 없다. 외국 기업들이 대중국 투자가 급증할 것인데

다, 중국 상품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던 각종 장벽들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2008년 하계 올림픽의 베이징 유치에도 성공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는 올림픽 투자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특수가 동부 연안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베이징과 인근 화북 지역의 발전을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지난해부터 서부 대개발에 착수, 금세기 중국 발전의 견인차로 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천문학적 비용을 필요로 하는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고,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부 신장 지역의 천연가스를 가스관을 통해 동부 상하이(上海)로 끌어오는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이 착공됐으며, 올해는 윈난(雲南)-칭하이(青海)-티베트를 잇는 철로 공사가 시작됐다. 이와 함께 양쯔(揚子)강의 물을 황하로 끌어들여 북부 지역의 만성적인 물 부족을 해결하는 남수북조 프로젝트 등 수천억 달러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들도 곧 발주될 예정이다.

중국 문명의 젖줄이자 요람인 양쯔강 일대가 건설 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것도 중국의 변화를 대변한다. 중국은 양쯔강 상류에 대형 댐을 만드는 산샤(三峽) 프로젝트를 비롯, 상하이에서 양쯔강을 따라 중국 내륙의 경제를 꿈틀거리게 하겠다는 용등호비 정책을 1990년대 중반부터 착실히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힘입어 상하이는 이미 부산을 위협하는 세계 4대 물동량의 항구로 성장했으며, 양쯔강에는 수십 개의 대형 교량이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용틀임은 아직 시작



에 불과하다는 게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인들의 지적이다. 

이종한

동아일보 북경특파원